

## 중국에 국내 포장제품 마케팅 국내 업체 중국진출에도 역할 담당



김재우

(주)웨스텍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국내의 우수한 포장제품을 중국에 소개하기를 자처하고 나선 이가 있다.

(주)웨스텍인터내셔널 김재우 대표이사가 장본인으로 포장산업에 대한 지식은 일천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 보다도 강해 우리나라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김 사장은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표준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

교 양자광학 연구실에서 광학과 관련한 연구를 해오다 삼우통신(주), 한국통신의 기업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성과를 올렸고 지난 1999년에 (주)산덕기계전자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산업 현장에 뛰어들었다.

2000년에는 중국 청도에 산동성 지닝암데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였고 다음해에 (주)웨스텍인터내셔널을 운영하면서 중국에 이동통신 및 광통신 인터넷 마케팅을 펼치게 된다.

또한 무한 중국광밸리 광전자대시장 한국대표, 한국광산업진흥회 중국대표로 광학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주변에 포장산업과 관련한 지인들을 만나면서 포장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내의 우수 포장제품을 중국에 알리기 위해 포장컨설팅 및 마케팅을 시작하

## 중국내 국내브랜드 이미지 제고, 양국 공동발전 기대

게 된다.

현재 중국 상해 포장인쇄성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업체들의 중국 진출시 토지, 공장설립 등 제반 조건의 최적 적용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On-Line과 Off-Line을 병행하는 포장 네트워크를 구축, 중국내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과 제품을 중국에 소개해 중국 포장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국내 포장업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게 김 사장의 구상인 만큼 양국의 포장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산 제품을 중국에 소개하고 이 사업이 정착되면 중국의 우수한 제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도 할 것이다”라는 김 사장은 “포장산업도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비교 분석과 이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4년 전부터 사업 구상에 들어가 2년여의 준비를 거쳐 이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김 사장은 소규모 업체의 중국 지사 역할은 물론 국내와 중국의 포장관련 정보 제공, 양국 포장관련 잡지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당분간 대중국 포장컨설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제 시작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최고의 마케팅을 펼칠 것이다”라는 김 사장은 중국과 한국의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중국 현지사정을 잘 알고 국내 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케팅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포장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 독자 설문 모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